“송광사 역사·법맥 조명 미래 발전토대”

조계총림 방장 현봉 스님

6월 24일 학술 세미나 개최
고려말서 조선 초 중심으로
송광사 위상·나옹선사 조명
인도승 지공 스님서 시작돼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승보사찰,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의 역사와 법맥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송광사(주지 자공)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방룡)은 6월 24일 경내에서 ‘고려말 조선초 송광사의 위상과 나옹의 법맥’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9년 11월 조계총림 방장으로 취임한 현봉 스님〈사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법석인 만큼,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나 세미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현봉 스님은 “코로나펜데믹으로 인해 한국은 문명의 전환시기에 와 있다”며 “그런 사회적 변환시기에 고려·조선의 변환기에 큰 영향을 미친 지공·나옹·무학 삼대화상을 조명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환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술세미나는 동국대 황인규 교수의 ‘고려말 송광사의 위상과 나옹계의 주석’, 문소운 동국대 박사과정의 ‘지공의 고려불교에 대한 영향 검토’,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자공의 대도 귀국 후 행보와 화장 후 영골 전래’ 주제발제로 진행된다. 이어 동국대 이철헌 교수가 ‘나옹의 고려불교 주도와 여말선초 나옹 문도의 역할’을, 성신여대 강호선 교수가 ‘나옹 계승자로서의 혼수와 무학 및 조선초 법맥’을,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이 ‘증명화상의 형성 배경과 불교적 위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현봉 스님은 “이번 세미나는 중국 중심이 아니라 인도의 스님인 지공 스님의 법맥이 조선 사회에 정립된 과정까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공 스님은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동안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스님은 “나옹 스님 이전 그의 은사인 지공 스님을 조망하게 된 것은 지공 스님이 고려말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에 따르면 고려시대 9산선문이 약해지고, 화엄학, 천태학 등이 일어나면서 불교계 혼란은 고려의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인도 나란다 대학(5세기~12세기. 세계 최초의 대학중 하나로, 불교교학의 중심으로 아시아 각지 출신의 학승이 운집해 배웠다)의 법맥이 지공 스님을 통해 전해진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지공 스님은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이고, 가섭존자에게서 불법을 받은 108대 조사이자, 나란다 대학 학맥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북인도, 티벳, 원나라 수도 대도, 운남성, 서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선지자”라며 “나란다 대학을 나온 지공 스님의 법맥은 한국불교의 보고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봉 스님은 “현재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 지공 스님을 비롯해 나옹·무학 스님의 영골을 모신 부도가 있다”며 한국불교 특유의 ‘영골’을 숭배하는 전통에 대한 시각도 드러냈다.

스님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골을 모시고 와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경우가 많기에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보다는 주변국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따라서 원시불교는 인도보다 변방에서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고 변방지역은 ‘적통을 잇고 있다’는 방법으로 영골을 모셔 숭배하고 모신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자장율사는 중국에서 〈화엄경〉 사구계와 부처님의 유골과 사리를 받아 오대적멸보궁을 세워서 부처님의 적통을 이었다”는 이야기는 학술적 논거를 떠나 한국불교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스님은 지공 스님의 제자들이 고려, 조선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고려말 회암사에서 크게 불교를 일으킨 나옹 스님과 조선 태조의 왕사가 된 무학대사, 함허(涵虛)대사, 한글 창제 때 주역인 신미(信眉)대사, 학열(學悅)·학조(學祖)·정심(正心)대사 등이 법맥을 이은 대표적인 제자들이다. 스님은 “특히 한글 창제에 참여했던 신미대사는 당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자와 언어를 익힌 지공 스님의 수행이력이 전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송광사는 성리학자들의 배불에도 법맥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학술대회는 이런 법맥을 이어온 분들을 조명하는 시간으로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에서 송광사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통을 이어달라는 겁니다. 송광사는 새로운 불교를 일으키는 데 늘 중심에 있었지요.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정신을 갖고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끝으로 스님은 “전통을 잇는 동시에 변환기의 한국불교에 발맞춘 변화도 필요하다”며 “전통과 현대적 변화를 잘 접목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6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6월 11일 서울 조계사서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이 6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하고 국민행복을 기원했다.

다례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 100여 명의 종단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종조께서 염원하신 선풍진작과 화합원융의 원력으로 사해오호 만중생들이 갈등과 대립, 분열과 투쟁이 사라져서 동서도 없고 남북도 없으니,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는 진리의 낙을 영득하게 하여지이다”고 서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에서 “1700년 한국불교 정체성을 이어온 조계종은 종조의 뜻에 따라 선과 교를 아우르는 통섭과 함께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켰다”며 “뭇 생명과 함께 정토세계를 위해 함께 수행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종조를 바로 모시는 후학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법화종 집행부, 청사 진입…정상화 기대

6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점거 해제

“정당성” 이유로 청사 개방
집행부, 6월 20일까지 폐쇄
내부정리·종무상황 검토중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과 집행부가 6월 16일 오후 2시경 대전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총무원 청사는 법화종 전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이후, 종법상 근거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악해 불법점거 상태로 유지돼 왔다.

법화종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사 진입은 청사를 그동안 무단점거 중이던 비상대책위 소속 일부 인사들의 자발적인 청사 개방으로 일체의 충돌 없이 자연스레 이뤄졌다. 대책위 소속 송원·희공·도명 스님은 “법적으로 정당한 집행부가 청사에서 종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혜문 스님의 청사진입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종정 도선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각하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6월 10일 해당 가처분과 관련해 “법화종 종헌종법상 종정에 대한 불신임 절차 및 징계 절차가 없고 중앙종회 또한 이를 의결할 권한이 없다”며 “법화종 구성원들이 종정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각하를 결정했다.

비상대책위 소속 송원·희공·도명 스님은 총무원 청사 점거를 주도 혹은 동조했지만, 법원이 종정 도선 스님의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더 이상의 점거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오전 비상대책위 점거를 해제했다는 연락을 받은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집행부에 소집공고를 내렸고 오후 2시경 진입에 성공했다. 현재 집행부 임원은 기획실장 관효 스님, 사서실장 서안 스님, 총무부장 서리 현묵 스님, 교무부장 지만 스님, 교화국장 지산 스님, 재무부장 서리 현봉 스님, 감찰부장 광래 스님, 감찰국장 혜안 스님, 조사국장 원담 스님 등이다.

집행부는 청사 내부 서류 확인 및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종무행정 정상화를 위한 내부준비를 위해 6월 20일까지 청사를 폐쇄키로 했다. 집행부는 “오랜시간 혼란했던 종단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종단 안팎에서 자행됐던 불법과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청년 위한 불교’ 이끌 미래세대위원회 2기 출범

조계종, 6월 15일 25명 위촉
위원장 성행스님…의제연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15일 백년대계본부(본부장 정념) 미래세대위원회 2기 위원들을 위촉했다.〈사진〉

제2기 미래세대위원회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장이자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일선에서 포교활동에 전념해 온 스님과 재가불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위촉식에 이어 “한국불교의 희망은 미래세대에 달려 있지만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종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백년대계본부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산하기구인 미래세대위원회가 미래 대안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젊고 참신한 인재들을 모셨다. 청년세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종단 미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 성행 스님은 “인구감소, 종교와의 친밀도 약화, 가족의 해체 등 종교지형이 매우 암울한 상황에서, 미래세대 역시 포기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미래세대위원장으로서 불교가 미래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기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저평가된 부분을 잘 살펴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미래세대 의제 연구와 불교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종령기구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으며, 2017년 불교가치의 미래세대 기여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1기 미래세대위원회가 출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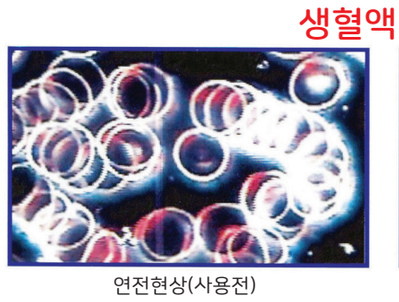
백년대계본부는 “제1기 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함과 더불어 종단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의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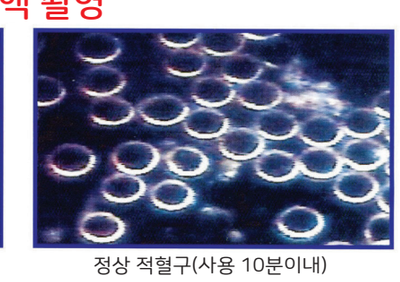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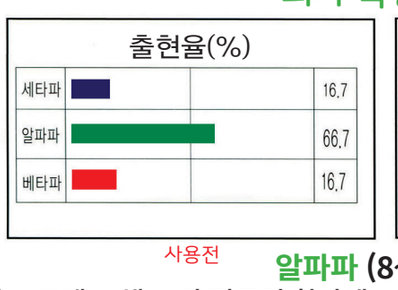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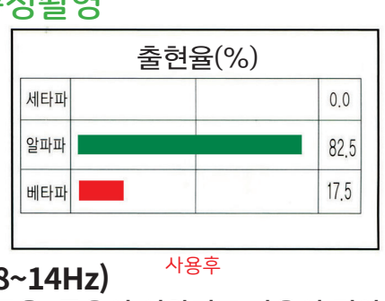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BLOOD MATE® 순비누:120g 9개 ~~270,000원~~ ➡ 100,000원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